

9월 모평, 국·수·영 모두 쉬웠다... 수능 난도 이보다 오를 것

국어 특정 고난도 문제 없어
수학 킬러문항 배제 후 가장 쉬워
영어 EBS 교재와 53.3% 연계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어려울 듯

4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최상위권 수험생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수능 출제 당국이 이번 모평을 통해 올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 국어, 만점자 늘 듯

1교시 국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지난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됐다. 6월 모의평가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난도가 높았다.

EBS는 국어영역이 지문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수험생들이 지문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고, 문항의 선지와 지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정보 간 대응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출제했다고 분석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다룬 독서 과학·기술 11번 지문, '바쟁의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낸 16번이 꼽힌다.

입시계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독서, 문학, 선택과목 3파트 모두 어렵게 출제된 지난 6월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정해서 고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점자도 지난해 본수능 64명(0.01%), 6월 모평 83명(0.02%)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최상위권

대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수학, 계산량 줄고 킬러문항 없어

2교시 수학 영역도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능과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통과목의 난도가 낮아졌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계산량이 줄어 응시자들이 6월 모평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이라 게 교사단 설명이다. EBS 연계율은 50%.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과목에서 각각 3문항씩 고루 연계됐고, 개념·원리의 활용, 문항의 축소·확대·변형, 자료상황의 활용으로 연계됐다.

변별력 확보 여부를 두고는 교사단과 입시업계 평가가 갈린다. 교사단은 "상위권을 변별할 만한 문항이 고루 출제됐다"라며, 고난도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1번과 22번, 선택과목인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확률과통계 30번을 각각 꼽았다.

입시업계는 최상위권 변별력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이후 가장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공통과목이 선택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출제돼 변별력은 선택과목에서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투스에도 9월 모평은 6월보다 '쉽게', 지난해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 영어, "1등급 비율 10%대 나올 듯" 전망

3교시 영어 영역도 앞선 국어·수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난도가 높지 않았다.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고,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됐다는 게 교사단 분석이다. EBS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와는 53.3%가 연계됐다. 듣기 및 말하기 17문항 중 13문항, 읽기

및 쓰기 28문항 중 11문항 등 총 24문항이다.

입시 업계는 영어 영역도 6월 모평, 지난해 수능보다 매우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 변별력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대표는 "역대 본수능 중 쉽게 출제됐던 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 영어 1등급은 2021학년도 수능이 12.66%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9월 모평은 전체적으로 체감 난도가 낮지만, 오는 11월 치러질 수능은 이보다 난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투스에도 "변별력이 필요한 수능은 9월 모평 같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며 "수험생들은 9월 모평 난이도나 점수에 현혹돼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실시한 9월 모평에는 수험생 48만8292명이 지원했다. 이중 고3 재학생이 38만 1733명으로 78.2%를 차지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 N수생은 10만 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고3 재학생 1만 285명, N수생은 2182명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민 70% "공공체육시설 있는지 몰라" 부산시, 동남권 최대 ICT 행사 열린다

(정보통신기술)

서울시의회 "위치·정보 접근성 높여야
전연령 고려한 홍보채널 다각화 필요"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가까이는 거주지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생애주기별 서울시민 생활체육 현황 및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인근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628개 표본을 수득하고 40명의 시민과 체육 관련 종사자를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의 67.8%는 거주지역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위치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2.2%에 그쳤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



2023 한강르네상스페스티벌 아쿠아슬론대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답 비율도 전체의 69.1%에 달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적 없는 응답자 중 80.4%가 인지 여부의 문제였고, 14.3%는 교통 문제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스포츠와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은 매우 미흡했다"며 "거주지역 내 시설 인지 여부에서부터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69.9%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모른다고 답했다.

개선 희망 사항은 공공체육시설의 위치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이 63.9%로 가장 많았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장비 보충, 접근성 제고가 각각 15.3%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스포츠 생활체육 정책을 묻는 인터뷰 조사에서는 ▲체력 증진을 위한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 결과 검토 등 체력 증진 컨설팅 제도 도입 ▲스포츠바우처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접 지역에 있는 시설의 위치와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또 전 연령을 고려한 홍보 채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ik1@

K-ICT WEEK in BUSAN

부산시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동남권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행사인 '2024 K-ICT WEEK in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ICT WEEK in BUSAN'은 국내 대표 ICT 전시 행사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정보기술 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한다.

이 행사는 'AI 코리아', 'IT 엑스포 부산',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3개의 전시회가 통합됐다. 특히 올해는 'K-ICT WEEK in BUSAN'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동시 개최해 ICT 기반 안전, 제조, 교육, 해양, 물류, 의

료, 보안 등 전 산업 관련 기업이 부산에

집결되도록 했다. 행사는 KT, 더존비즈온, 윈스, 슬래시비슬래시, 사프소프트 등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489개 부스 규모로 펼쳐지는 종합 ICT 전시회와 클라우드 콘퍼런스,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및 기업 투자 상담회(IR데모데이), 양자정보기술 전문 세미나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10일에 열리는 '클라우드 콘퍼런스'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조 강연과 함께 카카오펀터라이즈, 더존비즈온 등 국내 AI 기술 개발의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과 미래에 대한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 많은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400억 투입

평택시 세교지하차도 복구 등 나서

경기도가 평택시 세교지하차도 복구 등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 40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해 26개 시군(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 제외)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피해 규모는 총 19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파주 909mm, 연천 847mm, 포천 843mm 등 경기북부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은 지난달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400억 원 중 도비는 91억 원, 국비는 83억 원, 시군비는 226억 원으로, 시군별 복구액은 파주시 144억 원, 안성 73억 원, 평택 61억 원, 화성 17억 원 등이다. 하천, 도로, 산림 등 공공시설에 346억 원, 사유시설에 54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시 세교지하차도 복구사업 50억 원, 파주 수내천(소하천) 복구사업 37억 원, 안성 죽산제1교 복구사업 26억 원 등이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지반 침하 사전예방 개선안 마련

지하 매설물 전수조사 등 추진

서울시는 지반 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성산로 일대 지하 매설물 전수 조사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특별 점검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굴착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내 도로 곳곳에서 연달아 싱크홀, 땅 꺼짐 등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형적 특성, 기상 영향, 지하 매설물, 주변 공사장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산로의 도로가 내려앉



서대문구 성산로 지반 침하 원인 규명 조사 모습. /서울시

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